

# 공감 (Empathy)이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Empathy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허재홍\*, 이찬종\*\*

(Jae-Hong Heo\*, Chan-Jong Lee\*\*)

\*꽃동네현대사회복지대학교 복지심리학과,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접수일자: 2010년 4월 22일; 채택일자: 2010년 6월 8일)

고통한 공감이 대인관계에서 하는 역할은 꾸준히 밝혀져 왔다. 하지만 공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허재홍, 이찬종 (2010)은 공감지수 (Empathy Quotient: EQ) 척도의 심리측정 속성은 밝혔으나 확인요인분석은 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확인요인분석을 하였다. 대학생 421명 (남학생 192명, 여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EQ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세 요인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공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다. 또한 공감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공감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개인이 문화의 가치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공감에 우리나라 문화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도 시사되었다.

**핵심용어:** 공감, 공감지수 (EQ),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투고분야:** 말소리 생성 및 인지 분야 (12.5)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athy on relation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found the effect of empathy on subjective well-be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empathy and subjective well-being. It was hypothesized that empathy had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mediation of self-esteem. Heo, J.H. and Lee, C.J. (2010)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EQ. However they did not do confirmatory analysis. So confirmatory analysis needs to be done in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421 College student (male 192, female 225), and analyzed by SEM and path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3 factors model of EQ was proper, and EQ had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mediation of self-esteem. This suggested that empathy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our culture, and fulfillment of cultural task enhance self-esteem, which improve subjective well-being. And cultural featur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udy of empathy.

**Keywords:** Empathy, Empathy Quotient (EQ),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

**ASK subject classification:** Speech production and perception (12.5)

### I. 서론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1], 다른 사람의 정서와

생각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 [2]. 공감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5], 이는 공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 하는데 촉진작용 [6, 7, 5]을 하고, 넓은 의미에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 [5].

책임저자: 이 찬 종 (cjlee@kangwon.ac.kr)  
200 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309  
호 인문과학연구소  
(전화: 033-250-7252; 팩스: 033-250-7257)

공감이 대인관계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8-10], 갈등상태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어 관계를 강화시킨다 [11]. 또한 공감능력의 결핍은 비행이나 반사회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2, 13], 공감능력이 향상되면 공격행동이 감소되거나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14-16]. 이와 같이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통합과 조화 그리고 소통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17].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서 공감이 하는 역할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는 반면 공감이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복은 최근 긍정심리학이 등장하면서 관심받기 시작한 주제이다. 그동안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장애가 없는 상태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삶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보다 삶의 질을 더 낮게 하는데, 즉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18].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데는 수입, 교육정도, 직업, 부의 정도 등과 같이 개인 외부요소로 측정할 수도 있고, 자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같이 개인 내부요소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 외부요소는 객관지표만 측정할 뿐 개인의 삶의 질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19],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이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이다. 어떤 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20-23]. 즉 서구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개인들은 개인의 독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개인들은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된다고 한다 [24].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공감이 대인관계에서 더욱 중요하며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감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된 자료가 거의 없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이 정서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인 [1]에 따르면 공감은 중학생의 정서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감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안녕

감에 미치는 요인을 밝힐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자기존중감이다.

자기존중감은 [25]가 처음 개념을 제안한 이래 정신건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활발히 연구되었다 [26].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자기존중감이 높으면 안녕감과 정서 상관이 높고, 자기존중감이 낮으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문제와 부적 심관이 높다는 것이다. 자기존중감을 높이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21-23]. 더욱이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권에 상관없이 자기존중감이 개인의 안녕감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존중감은 집단주의 사회보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더 잘 설명하기는 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27, 28, 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자기존중감과 어떤 관계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공감이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연구된 자료는 없으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속한 문화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다시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고 본다 [20]. 이 사실을 감안하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잘 따르는 것이 되고 이는 다시 자기존중감을 높여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다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자기존중감과 독립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아니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2]가 개발하고 [29]이 번안한 공감지수 (K-ECQ) 척도의 심리측정 속성이 본 연구 집단에도 그대로 나타나는가였다. [2]가 개발한 공감지수 (EQ)는 이후 연구에서 세 요인, 즉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공감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30, 31], [29]에서도 세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9]의 연구결과가 일반화가 가능한 지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서 421명이 참여하였다. 남학생이 192명으로서 46.0%였고, 여학생이 225명으로서 53.4%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남학생이 21.4세 (표준편차 2.97), 여학생이 20.1세 (표준편차 2.3)였다.

### 2.2. 연구도구

#### 공감지수 (Empathy Quotient: EQ) 척도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2]이 개발하고 [29]이 변안한 한국어판 K-E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7개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그리고 사회기술공감으로 되어 있다. [2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 자기존중감 (Self-esteem)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25]가 제작한 것을 [32]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형 5문항과 부정형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3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33]가 개발한 생활만족감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34]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5분항으로 되어 있다. [34]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4였다.

### 2.3. 절차 및 분석방법

공감지수 척도, 자기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을 함께 묶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강의 시작 전에 설문지를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확인 요인분석 가운데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과 경로분석을 위해 AMOS 5.0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5.0을 사용하였다. 유의도 수준은 .05 수준과 .01 수

준으로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3.1. 확인 요인분석

#### (1) 신뢰도

먼저 [29]이 변안한 척도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 계수를 산출한 결과 계수는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항-총점 상관은 .25 (4번)에서 .70 (10번)까지인 것으로 나타나 4번과 총점간 상관이 다소 낮기는 했으나 분포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 .70,  $p < .001$ ). 이 결과를 <표 - 1>에 제시하였다.

#### (2) 타당도

K-EQ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주축 분해법을 사용하였고 사교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29]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요인 수는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 결과 2번과 8번 문항은 어떤 요인과도 부하된 것이 없어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번 문항과 8번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나은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나은지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경우를 모두 확인 요인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확인 요인분석해 본 결과 2번과 8번 문항을 포함시킨 경우는 모형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았다 ( $\chi^2_{(116)} = 280.1$ , NFI = .849, TLI = .890, CFI = .917, RMSEA = .048). 이에 따라 2번 문항과 8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번 문항과 8번 문항을 제외한 모형은 대체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 $\chi^2_{(57)} = 152.6$ , NFI = .887, TLI = .927, CFI = .947, RMSEA = .042). 두 모형을 비교해 본 결과 2번 문항과 8번 문항을 제외했을 때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_{diff-28} = 77.5$ ,  $p < .001$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번 문항과 8번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표 1의 K-EQ를 사용하였다.

### 3.2. 공감,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다음으로 공감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변인

표 1. 한국어판 공감지수 척도(K-EQ) 문항-총점 상관계수 및 요인부하량

Table 1. The correlations between each item and sum of items of K-EQ, and factor loadings.

번호	문항	문항-총점 상관	요인1	요인2	요인3
1	나는 어떤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다.	.529	.427		
6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그 의미가 다를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522	.54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잘 예견한다.	.681	.624		
10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말한다.	.702	.637		
12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싫증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543	.449		
14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629	.656		
15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고집어 낼 수 있다.	.624	.553		
16	나는 누군가가 그들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573	.648		
17	나는 누군가가 무엇을 할지 예견하는 것을 잘한다.	.590	.576		
11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을 볼 때 나는 마음이 동요된다.	.312		.676	
13	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요된다.	.321		.659	
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433			.437
4	우정과 관계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252			.386
5	나는 종종 어떤 것이 무례한지 공손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377			.399
7	나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왜 당황하게 하는지 알기 어렵다.	.458			.445
	아이겐 값			4.0	
	설명변량			33.1	

표 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means and std variations of variables.

	인지 공감	정서 공감	사회 기술 공감	자기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인지 공감					
정서 공감	.146**				
사회기술 공감	.385***	.054			
자기존중감	.259***	.100*	.342***		
주관적 안녕감	.123*	.036	.201***	.512***	
평균	25.6	6.5	12.3	50.2	19.8
표준편차	4.30	1.28	1.92	9.9	5.62

\*  $p < .05$ , \*\*  $p < .01$ , \*\*\*  $p < .001$ 

의 상관관계,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공감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감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은 자료와 아주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_{(3)} = 6$ ,  $p < .001$ ; NFI=1.000, TLI=1.000, CFI=1.000, RMSEA=.000). 본 연구에서 상정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 나은 모형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공감과 자기존중감이 독립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과 자기존중감이

공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먼저 공감과 자기존중감이 독립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이 모형은 자료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chi^2_{(6)} = 135.4$ ,  $p > .1$ ; NFI=.482, TLI=.312, CFI=.475, RMSEA=.227). 다음으로 자기존중감이 공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이 모형도 자료에 부합하지 않았다 ( $\chi^2_{(1)} = 159.7$ ,  $p > .1$ ; NFI=.390, TLI=-1.368, CFI=.309, RMSEA=.304). 따라서 공감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림 1의 모형을 채택하였다.

경로를 보면 인지공감에서 자기존중감에 이르는 경로와 사회기술공감에서 자기존중감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자기존중감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였다(인지공감→자기존중감:  $t=2.8$ ,  $p < .01$ , 사회기술공감→자기존중감:  $t=5.8$ ,  $p < .001$ , 자기존중감→주관적 안녕감:  $t=12.0$ ,  $p < .001$ ). 그러나 정서공감에서 자기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1.4$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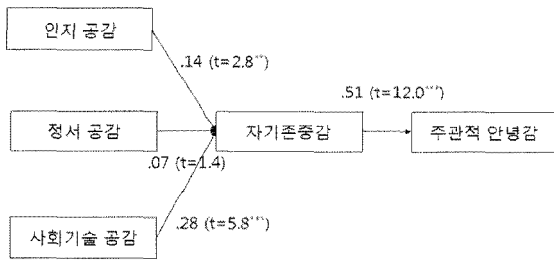


그림 1. 공감이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안은 t검증치. \*\* $p < .01$ , \*\*\* $p < .001$

Fig. 1. Effects of Empathy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path coefficient is standardized, and t-value is in round bracket.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이 개발한 공감지수 (EQ) 척도를 [29]이 변안하고 심리측정 속성을 밝힌 한국어판 공감지수 (K-EQ) 척도를 확인 요인분석 하였다. 그리고 공감이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9]이 변안한 한국어판 공감지수 (K-EQ)를 확인 요인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연구들 [29-31]과 마찬가지로 세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도 .81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감을 한 차원보다는 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공감이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35]. 아스퍼지 증후군이나 자폐성향을 잘 구분해 준다는 연구 [36, 37]의 결과를 고려할 때, 공감을 세 차원으로 이해함으로써 여러 영역에서 공감이 하는 역할에 대하여 좀 더 풍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이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공감이 자기존중감과 독립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감은 자기존중감과 독립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개인이 속한 문화의 가치를 잘 따르는 것이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로서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

를 잘 한다는 문화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이는 자기존중감을 높여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이다. 공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 $p > .05$ ). 이 결과는 공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두 개 변인만 고려했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공감의 영향이 작게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1]의 연구에서 공감이 희망보다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것도 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감 중에서 인지공감과 사회기술공감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공감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는, 즉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아는 능력이 중요하고, 관계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지공감은 이심전심 (以心傳心)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사회기술공감은 상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두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할 때, 서구에서 하는 여러 전략들, 가령 말을 많이 한다거나 자기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상대의 마음을 아는, 즉 비언어 단서를 통해 파악하는 훈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 하나는 상대에 따라 다르게 해독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상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공감지수 (EQ)의 요인별 문항구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감은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 하지만 세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가운데 두 문항이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이는 공감지수 (EQ)의 요인을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도 적절한 문항 수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31]은 28개 문항이 적합하다고 하였고, [30]은 15개 문항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몇 개 문항이 적합한지는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감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문화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이 공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개념을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2]의 공감차원

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 특성을 견주어 해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 특성 가운데 하나인 눈치도 공감의 차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눈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공감과 관련성을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주의 문화와 비교하여 어느 문화에서 공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심리학의 연구를 토대로 공감이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공감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관계변인을 넣어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56). 설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오승태·김은용 교수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김익선·이민용 HK교수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최기욱 (강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연구보조원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 참고 문헌

- 이희경, "중학생의 회광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 19, no. 3, pp. 751-766, 2007.
- Baron-Cohen, S., and Wheelwright, S.,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f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 34, pp. 164-175, 2004.
- Greenson, R. R., "Empathy and its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41, pp. 418-424, 1960.
- Kohut, H., "Introspection, empathy, and psychologist,"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logists Association*, vol. 7, pp. 459-483, 1959.
- Redmond, M. V., "The function of empathy (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vol. 42, pp. 593-605, 1989.
- Clark, L. B.,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y*, vol. 35, pp. 187-190, 1980.
- Eisenberg, N., and Strayer, J.,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1987.
- Batson, C. D., Ahmad, N., Lishner, D., A., and Tsang, J., "Empathy and altruism," C. R. Snyder and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2.
- Hoffman, M. L.,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N. Eisenberg (Eds.),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 Findlay, L. C., Girardi, A., and Coplan, R. J., "Links between empathy, social behavior, and 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21, pp. 347-359, 2006.
- Guernsey, B. G.,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Jossey Bass, San Francisco, 1977.
- 김범준, 이은진, 김영윤, "대학생들의 정신병질에 대한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 14, no. 2, pp. 219-239, 2009.
- Miller, P. A., and Eisenberg, N.,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324-344, 1988.
- Batson, C. D., and Coke, J. S., "Empathy: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J. P. Rushton and R. M. Sorrentino (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Erlbaum, Hillsdale, NJ, 1981.
- Cialdini, R. R., Schaller, M., Hurlihan, D., Arps, K., Fultz, J., and Bearman, A., "Empathy-based helping: Is it selflessly or selfishly motiv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pp. 749-758, 1987.
- Freschbach, N. D., and Freschbach, S.,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 399-413, 1982.
- 조공호, 김지연, 최경순,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분노 수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 23, no. 1, pp. 69-90, 2009.
- Arihau-Day, M. L., Rode, J. C., Mooney, C. H., and Near, J. P., "The subjective well-being construct: a test of its convergent, discriminant, and factorial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4, no. 3, pp. 445-476, 2005.
- 조공호,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과 정서의 조절," *사회과학연구*, vol. 6, pp. 27-86, 1999.
- 조공호, *이상적 인간행동의 동·서 비교*, 지식산업사, 서울, 2006.
- Diener, E., and Diener, M.,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8, no. 4, pp. 653-663, 1995.
- Heine, S. J., and Lehman, D. R., "Cultural variance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8, pp. 595-607, 1995.
- Kwan, V. S. Y., Bond, M. H., and Singelis, T. M.,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3, no. 5, pp. 1038-1051, 1997.
- 조공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나남출판, 서울, 2003.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 Leary, M. R., and Baumeister, R. F.,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M. Zanna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Academic Press, San Diego, CA, 2000.

27. 허재홍,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 연구*, vol. 17, no. 2, pp. 2009.

28. 허재홍, 진현정, "문화성향에 따라 자기고양 편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vol. 9, no. 4, pp. 1475-1487, 2008.

29. 허재홍, 이찬중, "공감지수 (Empathy Quotient: EQ) 척도의 심리 측정 속성," *인문과학연구*, vol. 24, pp. 183-200, 2010.

30. Muncera, S. J., and J. Lingb,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empathy quotient (EQ)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0, no. 6, pp. 1111-1119, 2006.

31. Lawrence, E. 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and David, S.,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vol. 34, pp. 911-924, 2004.

32. 이훈진, 원호택,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 14, no. 1, pp. 83-94, 1995.

33.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pp. 71-75, 1985.

34. 류연지,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35. 이명희, *공감훈련이 중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6. Baron-Cohen, S., Richler, J., Bisarya, D., Guranathan, N., and Wheelwright, S., "The systemizing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vol. 358, pp. 361-374, 2003.

37. Wheelwright, S., Baron-Cohen, S., Goldenfeld, N., Delaney, J., Finea, D., Smitha, R., Weila L., and Wakabayashic, A., "Predicting Autism Spectrum Quotient (AQ) from the Systemizing Quotient-Revised (SQ-R) and Empathy Quotient (EQ)," *Brain Research*, vol. 1079, no. 1, pp. 47-56, 2006.

---

### 저자 약력

---

•허재홍 (Jae-Hong Heo)



1993년 2월 서강대학교 졸업 (경제학사)  
 1996년 8월 연세대학교 졸업 (문학석사)  
 2005년 8월 연세대학교 졸업 (철학박사)  
 2009년 3월 - 현재 : 꽃동네연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  
 심리학과 조교수  
 ※ 주관성분야 : 문학, 철학, 수필

•이찬중 (Chan-Jong Lee)

한국음악학회지 제28권 제3호 참조